

수준 높은 강의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상담심리학과 윤서영 학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객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상담사부터 시작해 센터장, 운영지원 총괄까지 고객센터 내 모든 업무를 경험했죠. 고객센터에서 일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상담사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담사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첫 작품입니다. 출판은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부담감도 컸습니다. 완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보다 쉬웠습니다.

수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책을 낸 후에는 고객센터 관련 강의를 하고자 '윤서영커리어컨설팅'을 설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한 조직심리가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고, 다양한 논문을 읽다 보니 문득 개인 심리가 궁금해졌습니다. 이후 심리학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세부전공을 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서울사이버대학교로 편입한 것은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준 높은 강의와 시간적인 편의성 때문에 학업 만족도가 상승했습니다. 강사로 활동하는 저는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편인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 덕분에



윤서영 학우가 집필한 저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 감정노동의 지혜>, <영향력있는 BJ 유튜버를 꿈꾼다>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며 배운 배경지식 덕분에 좀 더 견고하게 집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덕분에 공부에 대한 열의를 불태웁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2학기부터는 부동산학과도 복수전공으로 시작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다양한 강의를 무한대로 선택할 수 있기에 빠듯한 시간과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강의로 탄탄하게 지식을 쌓아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책 집필 때문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수 없었어요.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을 때는 틈날 때마다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한번 느낀 것이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공부하기 참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재우면서도 이어폰을 끼고 편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